



건대추 가격 평년대비 강보합세 보일 듯

대추

2010년
11월호

※ 품질 평년 수준

- 과실은 전반적으로 커졌으나, 당도·광택은 수확기의 일조량 감소로 평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 수확량 평년 대비 감소

- 수확기에 과실의 비대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과실의 수가 평년에 비해 많이 줄어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추 가격 강보합세 전망

- 11월 건대추 가격은 수확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평년 대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 수요 요인의 부족으로 상승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1월 이후 건대추 수입 있을 듯

- 11월 이후에는 국산 건대추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수요가 비교적 많은 중품(상초)의 건대추 수입이 이루어지겠지만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추 품질 전망

단위 : %

품 질		작년대비	평년대비
크 기	증가	61.3	1.4
	비슷	26.7	98.6
	감소	12.0	-
당 도	좋음	8.2	1.4
	비슷	24.7	90.1
	나쁨	67.1	8.5
광택	좋음	11.6	-
	비슷	31.9	91.9
	나쁨	56.5	8.1

주 : 주산지 표본임가 및 지역자문위원 조사치(9월 24일~10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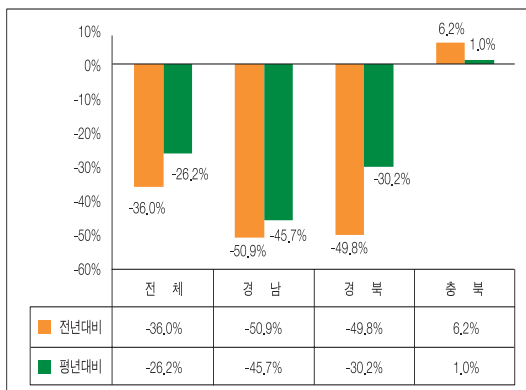
■ 수확기 주산지별 피해 현황

단위 : %

구 분	피 해 없음	피해 발생		
		태풍 및 집중호우	병해충	기 타
합 계	77.1	3.6	15.7	3.6
경 남	66.7	-	33.3	-
경 북	82.7	-	13.5	3.8
총 북	68.4	15.8	10.5	5.3

주 : 주산지 표본임가 및 지역자문위원 조사치(9월 24일~10월 4일)

■ 주산지별 수확량



주 : 주산지 표본임가 및 지역자문위원 조사치(9월 24일~10월 4일)

■ 등급별 수확 비율

단위 : %

구 분	특 품	상 품	중 품	열과 등
금 년	28.9	36.3	20.6	14.2
전 년	23.8	31.4	19.5	25.3
평 년	25.3	34.9	22.2	17.6

주 : 주산지 표본임가 및 지역자문위원 조사치(9월 24일~10월 4일)

산 지 동 향

대추 품질 평년 수준

- 늦여름 이후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적었으며 지역 별로 차이는 있지만 병해충 피해도 크지 않아 크기가 전년 보다 좋아져 평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당도, 광택은 크기와 달리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량 평년대비 감소

- 금년도 수확량은 봄·여름철의 기상조건 악화와 병해충 피해로 평년대비 약 26%, 전년대비 약 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경북지역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 지역의 대추 수확량은 평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급수·비가림 시설이 잘 갖추어졌으며, 기상조건도 경남, 경북 지역에 비해 양호했기 때문이다.

특품, 상품 수확 비율 평년 대비 증가

- 등급별 수확 비율은 특품(별초)와 상품(특초)이 평년 대비 증가, 열과 등의 불량과는 평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착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확기에 기상 조건이 양호하고, 병해충 피해도 크지 않아 대추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격동향 및 전망

건대추 산지가격 평년대비 상승

- 10월 상순 건대추 산지가격은 특품이 전월 가격을 유지하고, 상품과 중품의 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감소하여 상승세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추석 이후 뚜렷한 소비수요가 없어 상승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11월 건대추 가격 평년대비 강보합세 전망

- 11월 건대추 가격은 수확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평년 대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 수요 요인의 부족으로 상승세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동향 및 전망

건대추 수입량 작년대비 크게 감소

- 10월까지의 건대추 총수입량은 약 10톤으로, 4월 이후 수입량은 없었는데, 이는 중국산 건대추의 수입 가격이 국산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1월 이후 건대추 수입 있을 듯

- 11월 이후에는 국산 건대추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수요가 비교적 많은 중품을 중심으로 건대추 수입이 이루어지겠으나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월별 건대추 산지 평균 도매가격

단위 : 원/kg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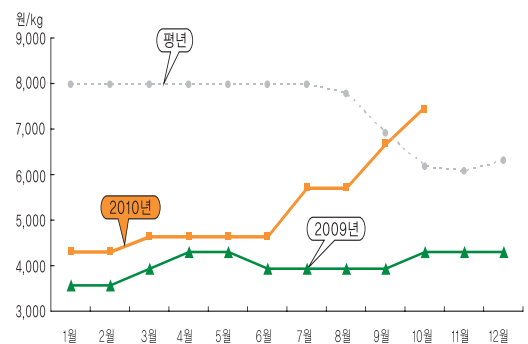
구분	연도	7월	8월	9월	10월
특품 (별초)	2010	9,286	9,286	9,629	(9,629)
	2009	8,571	8,571	8,571	7,857
	평년	9,345	9,254	9,048	8,521
상품 (특초)	2010	5,714	5,714	6,667	(7,407)
	2009	3,929	3,929	3,929	4,286
	평년	7,976	7,775	6,905	6,154
중품 (상초)	2010	4,286	4,286	4,815	(5,185)
	2009	2,500	2,143	2,143	2,500
	평년	5,714	5,476	4,405	4,570

주 : 평년가격은 '05년 1월~'09년 10월의 월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가격임

()는 10월 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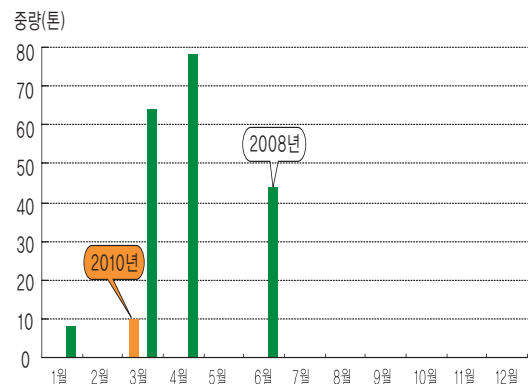
자료 : 경동시장

■ 월별 건대추 평균 도매가격 동향(상품기준)



자료 : 경동시장

■ 건대추 월별 수입실적(중량)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관세청 (www.customs.go.kr)

수확기 이후 병충해 방제

- 병충해 발생
 - 금년에는 개화기의 이상 고온 및 잦은 강우로 인한 고온다습한 기후로 평년에 비해 병충해 발생빈도가 많았음.
- 예방 및 방제
 - 대추 수확 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 이내에 방제를 하여 병충해의 월동을 예방하고, 방제 이후에도 낙엽을 끌어 모아 소각함.

자료제공 : 신지식 임업인 김영식(<http://daechui.puruemi.com>)

◎ 기압계 전망

10월 중순과 하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으며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일시적인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11월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내륙 지방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기상청(www.kma.go.kr), 2010년 10월 4일 발표

■ 순별 기온 및 강수량

구 분		서 울	강 릉	대 전	대 구	전 주	광 주	부 산	제 주
10월 중순	최고기온	20.1	20.1	20.7	21.9	21.5	21.8	22.2	21.2
	최저기온	10.1	10.9	8.6	10.5	9.7	10.5	14.1	14.7
	강 수 량	18.0	40.4	17.0	13.5	17.9	13.9	21.6	25.7
10월 하순	최고기온	17.0	18.3	18.1	19.6	18.9	19.3	20.5	19.4
	최저기온	7.2	8.7	5.7	7.7	7.0	8.1	11.6	12.6
	강 수 량	15.3	33.2	19.3	12.2	20.4	19.9	17.9	19.6
11월 상순	최고기온	15.0	16.3	16.0	17.6	16.9	17.4	18.8	18.1
	최저기온	5.9	7.5	4.4	6.2	5.7	6.5	10.3	11.3
	강 수 량	20.3	29.8	17.1	13.8	18.1	17.9	22.7	24.2

단위: °C, mm

주: 강수량은 평년값임(1971~2000년)

임업관측(대추) 2010년 12월호 예고 (예정일자 : 2010. 11. 15)

· 내 용 : 대추 생산동향 및 재배의향, 가격동향 및 전망, 수입동향 및 전망

『임업관측월보』는 인터넷과 임업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우측 【바로가기】 메뉴바의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2) 3299-4315 FAX: 02) 960-0165
<http://www.forest.go.kr> ☎ 042) 481-4206 FAX: 042) 471-1446

담당자 : 장철수, 석현덕, 안상선

이 「임업관측(대추)」은 산림청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소에서 재배자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임업 및 통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 및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